



전북교육, 한국의 중심으로 한걸음 더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2026년 교육정책 구상 발표

AI, 민주·생태·역사교육

학생 마음건강 새 과제 선택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은 6일 "전북교육이 한국의 중심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유정기 권한대행은 본청 강당에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는 2025년 현장에서 검증된 학력신장과 책임교육의 성과를 정책의 출발선으로 삼아 그 흐름을 더욱 단단히 이어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2026년 10대 핵심과제 등 올해 주요 교육정책을 교육가족 및 도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취지에서 열렸다.

유 권한대행은 이날 10대 핵심과제 가운데 △AI 교육 △민주·생태·역사 교육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 3가지를 올해 전북교육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새로운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AI 교육에 대해 "기반은 갖췄다. 이제 교육으로 작동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권한대행은 "지난 3년간 전북교육은 33부터 고3까지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을 100% 완료하는 등 AI 교육을 위한 물리적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다"며 "이를 수업과 학습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지금 전북교육이 마주한 과제"라고 밝혔다.



故 이승철 경정 영정사진 놓인 전북경찰청

고속도로 교통사고 정리 중 2차 사고로 순직한故 이승철 경정의 영결식이 치러진 6일 전북경찰청에 이 경정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사진=뉴스시스 제공)

그러면서 "이를 선택이나 특화가 아닌 '기본교육'으로 전환하겠다"며 "AI 선도학교와 중점학교를 운영해 학교급별 AI 교육 모델을 현장에서 먼저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교육 TF를 조직해 초·중·고 연계 AI 활용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한편 AI 교육과 관련한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 AI 수업 역량 연수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생태·역사교육 구상도 밝혔다.

유 권한대행은 민주교육에 대해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가치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교육이 놓쳐서는 안 될 중심"이라며 "헌법 가치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을 학교 교육의 핵심 책무로 명확히 해 민주주의를 배우는 교육을 넘어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교육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생태교육에 대해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고, 역사교육에 대해서는 "지역 연계 체험 중심 역사교육을 전년 대비 20% 확대해 학생들이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판단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서적 위기 속에 놓인 학생들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 예방·조기 발견·치유로 이어지는 학생 마음건강 상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학생 한 명 한 명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이들 3가지 핵심과제 이외에 △독서·인문교육 △수업혁신 △교과학습 강화 △특성학교 취업 △교육활동 보호 △다문화교육 △유아 발달·방과후 지원 등을 올해 10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김재훈 기자

“내발적 발전 도정 전환”

민주 이원택 의원, “전북 안에 있는 사람 등

성장 주체로 세우는 도정 패러다임 전환할 때”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이 지역 내부 역량을 키우는 '내발적 발전 도정'으로 전면 전환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6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년 신년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새만금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지역 기업·인력 참여 비율을 최소 30% 이상 의무화하는 지역 환류 구조제도화 △퍼지컬 AI 재생에너지·수소, 디지털 전환 등 첨단 산업을 전북 기업과 직접 연결하는 산업 클러스터 설계

중소기업·자영업·농업을 전북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재정 의하고 '전북형 스타 기업' 100개 이상 육성 등을 제시했다.

실제로 매출 1,000억원 이상의 '전북형 스타 기업'을 100개 이상 육성하고, 농업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혁신의 주체로 세워 지역업과 소상공인을 단순 생계형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도정은 이벤트가 아니라 철학이어야 하고, 정책은 발표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변화로 증명해야 한다"라며 "전북에서 만들어진 성장의 과실이 전북의 일터와 소득으로 되돌아오는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 속으로 현장 소통 행정에 박차를 가한다.

도는 7일 전주시를 시작으로 도내 14개 시·군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도민과 함께하는 2026년 시군 방문'에 나선다.

이번 시군 방문은 '도민과 함께 뛰고, 함께 성공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새해를 맞아 마련됐다. 그간의 도정 운영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한 취지다.

도는 도정 주요 성과와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과 직접 소

“도민과 함께 뛰겠다”... 전북자치도, 14개 시군 순회 돌입

민선 8기 도정 성과 정리·향후 추진방향 설명

이달 중 전주 등 14개 시군 순회 현장의견 청취

도민과의 대화·민생 현장 방문 통해 소통 강화

통하는 열린 대화의 장을 펼친다. 방문 일정은 7일 전주시를 필두로 8일 장수군 9일 김제시 12일 익산시 등의 순으로 이어지며, 오는 23일 군산시 방문을 끝으로 이달 중 14개 시·군

전역을 돌게 된다. 먼저, 방문 첫 순서로 시·군의회의를 방문하여 지역과 주민을 대표하는 시·군의원들과 환담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머리를 맞닿

계획이다.

이어서 올해도 예년과 같이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았던 '도민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도지사 특강이 실시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전경성의 처음과 끝, 도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도정 주요 성과와 계획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 현안과 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답변한다.

특히, 올해는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

장 등 민생 현장 방문지를 늘려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과 지역 경제 실태를 직접 살피는 데 역점을 뒀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통시장에서는 장보기와 주민 만남을 통해 체감 물가와 상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시·군 방문은 도민과 직접 소통하며 도정 운영의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며 "현장에서 제시되는 의견과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앞으로도 도민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기자

본사 인사

▲전 문 선 국장

명 : 무주취재본부장

▲손흥기 기자

명 : 지방부 무주주제

(1월 7일자)

